

ㄹ 이 시대의 최고의 적 무관심을 종의 마음으로 이기는 성도

성경말씀: 빌2:19-30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의 일들을 돌보지 않는다(2:4). 예수님의 모범(5-11), 바울의 모범 그런데 알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워크인이 있어야 한다. 그 뒤에 우리가 워크아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성령 충만이다. 현상: 온전한 가정생활

21세기, 떡고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 사람들 간의 관계는 망가지고 있다. 이유: 무관심 다른 사람을 돌보려 하지 않는다. 돌보다가 오히려 당한다는 두려움

<이 시대의 최고의 적은 무관심이다>

가족 간에도 대화가 별로 없고 떨어져 있는 부모나 형제간에도 별로 왕래가 없다.

오랜 만에 안부 정도 전화하는 것이 귀찮아하는 세상이 되었다.

남이야 어떻게 살든 이웃에 대하여도 관심이 없다.

아파트에서 10년을 살아도 이웃집 사람들의 얼굴도 모르며 사는 시대다.

교회에서 행사를 위해 무슨 말을 하여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나대로의 방식대로 살며 남에게 간섭 받지 않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교회 내에서도 새로 온 신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부교역자들이 새로 와도 관심이 없어서 조금 큰 교회에서는 부목사 이름조차 모른다. 심지어 대학교 교수도 마찬가지

기도도 식사기도 외에는 관심을 기울지 않으며 주일 낮 예배 한번 외에는 마음에 부담도 관심도 없다.

어쩌다 오후예배나 수요일예배에 참석하면 웬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무관심의 극치이다.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이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그 외의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참으로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 가는 교회내 사람들의 풍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 정도로만 생각되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를 않는다.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 찾느라 법석을 떨고

예배의 중요성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 예배에 지각을 해도 별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주일 예배드리는 것이 평상시 화장실 가는 것처럼 관습에 매여 행하는 일상에 불과한 신앙생활의 양상을 띄고 있다. 회개에 관심이 없고 회개를 안 하니 회개의 눈물이 메말랐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자신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단지 천국 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 잡혀 행하는 주일 행사에 불과 예수님의 표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

나만의 삶만 존재하는 무관심의 극치가 교회를 뒤 덮고 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적은 무관심이다.

하나님도 관심 밖의 존재요, 세상에 나만 있을 뿐이니 오호라 어찌 할꼬?

책 제목: <무심한 엄마, 무관심한 선생님>: 끔찍한 고통 속에서 혼자 싸움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그들의 바로 곁에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관심이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관심 표명

사람들의 주장: 예수님이나 바울이니까 남을 돌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례 필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 삶의 모범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예를 든다. < >

디모데(19-24)

아마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를 만났을 것이다(행14:6). 그때에 회심 가능성(고전4:17) 성경을 보면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먼저 회심하였다(딤후1:3-5)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행16:1), 바울은 그를 자기 아들이라 부름(딤후1:2)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며 더베와 루스드라로 감, 이때에 그는 선교 일행이 됨(행16:1-4)

디모데의 삶에서 배우는 교훈: 남을 돌보려는 마음, 복종하는 자세는 하루 사이에 생기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을 키워야 한다. 나면서부터 종이 될 자질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바울을 따라다니며 배운 것이다. 바울의 신뢰(22)

1. 디모데의 종의 마음: 바울의 필요: 감옥에 있다. 누구를 빌립보에 보내 그들 사정을 알아보고 돕고 싶다(19-20). 로마의 수많은 성도들,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가 이름을 언급한 사람만 26명

그런데 디모테를 빼고는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사역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육적 필요에 부응하는 것

교회 사역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잘못: 친구를 얻고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싶다.

바울의 권면(고전4:1-4), 신실한 사람, 필요할 때 응하는 사람

오히려 로마 성도들 가운데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도 있음(1:15-16).

바울을 비방하는 데는 시간이 있으나 그를 돕는 일은 방해함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재능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한다. 우리 청장년들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감사, 특별히 교사들에게 감사, 식사 주방, 주차 봉사, 방송실

디모테의 가장 큰 관심: 다른 성도들의 영적 유익, 이것은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자질

2. 종으로서의 훈련(22): 회심하자마자 데리고 간 것이 아니다. 더베 교회에 남아서 교제하게 함
그 교회 안에서 자라남, 몇 년 뒤 다시 더베로 감. 그는 좋은 평판을 가짐(행16:2)

디모테전서의 교훈: 초신자는 안 된다(딤후3:6-7).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자마자 무언가 하려고 애를 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무언가
과도한 일을 하려 하면 지쳐서 쓰러진다.

나무가 있다. 뿌리가 지탱한다. 그런데 뿌리가 자라기도 가지들이 뺏어나가면 나무가 쓰러진다.

내면을 다져야 한다. 가정을 다져야 한다.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

바울의 훈련 방법(딤후3:10-17), 자기 삶을 보게 함, 예수님의 방법

성경을 의지하게 함, 성공적인 삶을 위해 경험과 교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3. 디모테에게 주어진 영광의 보상

바울이 필요로 하는 데는 다 있었다. 바울 서신에 24회 등장

하나님의 가장 큰 보상: 바울의 잇는 것(딤후4:1-11), 디모테는 바울의 아들, 종, 나중에는 후계자
바울은 그에게 직접 두 개의 편지를 씀: 딤후전, 딤후

바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역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에바브로디도(25-30)

빌립보 교회의 성도, 아마도 이방인, 그곳 성도들이 로마로 보냄(4:18), '호감이 가는 사람'

1. 균형 잡힌 성도(26);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동료 군사

성도의 생활: 교제와 전도, 균형, 검과 삽을 든 사람

2. 부담을 진 성도(26-27, 30),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특히 사도 바울, 바울의 감옥 생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의 선물을 들고 적어도 1000킬로미터 거리를 달려감

3. 얼마나 힘들었는가(27), 병들어 죽게 됨(30)

그는 사랑의 선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주려 하였다. 이런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관계가 매우 많다. 특별히 리더와 그의 뒤를 잇는 사람의 관계

모세와 여호수아(민11:24-30), 백성의 불평, 모세가 죽여 달라고 함(15), 메추라기 사건

모세와 70명 장로들, 주님의 영이 내려옴(25), 진영에 두 사람이 남아 있음(26), 엘닷과 메닷
대언함, 여호수아의 딸(28), 감히 왜 다른 사람들이 대언하는가?

단순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인 인간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

교회를 사랑한 사람(26), 병에 걸린 외중에서도 교회 사람들 생각, 오히려 그들의 염려를 두고 걱정함

복 받은 성도(28-30); 자기가 복을 받고 남에게 복이 되었다. 바울의 감사(27), 하나님은 은혜와
공활을 베풀어 주심, 바울의 권면(29),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결론

교회와 가정,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야 한다. 디모테와 에바브로디도. 아들과 아버지, 목숨을 내놓는
관계, 훈련 필요, 무관심한 세상에 말씀을 보내는 일, 구원받게 하는 일, 미디어 선교(빌2:4)